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및 유족등록 신청 안내

① 등록신청 대상자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손자녀·증손자녀·고손자녀(외손포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란 1894년 봉건체제 개혁을 위하여 봉기하고 같은 해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고자 재봉기하여 항일 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중심의 혁명참여자를 말한다.

② 등록신청 서류 및 제출방법

가. 등록신청 서류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등록 신청서
- 첨부서류
 -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각 1부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족보)
 - 신청인의 선조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

나. 제출방법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을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주소 : 전북 정읍시 동학로 7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③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063-538-2897)으로 문의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 페이지(www.cdpr.go.kr) 또는 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참고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녹두꽃

2020 | 여름 | 40호

녹두칼럼

윤경로 / 역사학자·전 한성대 총장

포토토픽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뉴스초점

주요 뉴스 소개

참여자 유족 인터뷰

정원명 / 참여자 장옥삼의 증손자

지역단체 포커스

지역단체 행사

기고

신영우 / 충북대 명예교수

녹두의 감성
새하늘을 열다

갑오척사록



갑오척사록 1895년 18.7×28.7cm | 충남대학교 도서관 소장

「갑오척사록」은 유학자 반재원(潘在元, 1854~1921)이 일기 형식으로 기록한 것으로 동학농민군을 방어·진압하기 위해 경상도 북부지역 유생들이 예천군에 설치한 보수 집강소의 주요 활동을 담고 있다. 보수 집강소의 조직과 조약을 비롯하여 1894년 3월 이후 예천지역의 농민혁명군 동향과 보수 집강소에서 행한 농민군 구금·살해를 둘러싸고 동학농민군 측의 금곡포덕소(金谷布德所)와 보수 집강소 사이에 오간 통문(通文)과 소아(蘇雅) 접주(接主) 최맹순(崔孟淳)의 활동상, 함창(咸昌)·태봉(胎峰)지역 동학농민군이 일본군을 공격한 사실 등을 기록한 이 유물은 경상도 북부지역 동학농민혁명의 전개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가 크다.

02	역사의 눈 「갑오척사록」	
04	녹두칼럼 윤경로 / 역사학자·전 한성대 총장	
06	포토포픽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16	뉴스 초점 전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고(故) 이이화 이사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제13회 녹두대상 신순철 원광대 명예교수 선정 제10회 동학농민혁명대상(大賞) 도올 김용옥 선생 선정·시상 제13회 후광(김대중)학술상 고(故) 이이화 선생 선정·시상 KBS 전주방송 특집 심층토론	
22	참여자 유족인터뷰 장원명 / 참여자 장옥삼의 증손자	
28	기고 신영우 / 충북대 명예교수	
32	교육·체험 기념관 어린이 전시실	
38	지역단체 포커스 전북 정읍 제53회 황도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전북 남원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 행사 충북 청주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제정 1주년 기념식 전남 장성 제126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 전북 전주 2020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 경남 산청 2020 산청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44	보도기사 색인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45	교육·체험 프로그램 일정 안내	



표지 설명

지난 5월 11일 전북 정읍 황토현 전적(사적 제295호)에서 개최된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포스터.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한 세상을 열고자 했던 동학농민군의 기상을 우리나라 지도와 높고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이미지화 하였다.

추수 제자(題字) : 효봉 여태명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다시 생각한다



윤경로
역사학자 · 전 한성대 총장

일반적으로 동학농민혁명의 성격과 의의를 반봉건 반외세로 정의한다. 수용할 태세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된 1876년의 타율적 개항은 이후 한국 근대사의 전개에 두고두고 부정적 영향을 끼치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19세기 들어 구조화한 지배층의 부패와 가렴주구에 더해 아류 제국주의의 길에 들어선 일본의 침탈은 그야말로 국가 존망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었다. 이러한 말기적 현상에 정면으로 맞서 역사변혁의 주체로 분연히 떨쳐 일어난 민중세력이 바로 동학농민군이었다.

반제 반봉건을 기치를 내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난 지 어느덧 13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위상을 두고 수많은 논쟁과 공박이 이어져왔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일반 역사서는 물론 교과서에도 '동학란'이라 서술했던 기억을 떠올리면 현재의 평가는 그야말로 상전벽해라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어느 누구도 '동학란'이라는 몰가치적이고 반역사적인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전문 연구자는 물론 시민단체들의 힘 없는 노력이 있었다. 특히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1년 앞둔 1993년 12월에 발족한 동학농민혁명100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소속 각 지역 기념사업단체들이 학술연구와 실천운동을 활발히 전개하면서 시민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지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역사학과 기념사업단체의 노력에 힘입어 마침내 2004년 동학농민혁명 관련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18년 4월에는 종로 네거리에서 전봉준 장군 동상이 세워지기에 이르렀다. 나아가 지난해 2월에는 5월 11일을 법정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선포하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이러한 일들은 '농민반란'이 국가가 공인하는 '혁명'으로 거듭난 일대 사변이다.

그러나 아직도 남은 과제가 적지 않다. 우선 세 가지만 제언하고자 한다. 먼저 동학농민혁명 당시의 순국자에 대한 예우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동학농민혁명의 주역은 그야말로 무명의 농민군들이었다. 한편, 전봉준 장군을 비롯한 적지 않은 수의 지도자와 농민군에 대한 뚜렷한 행적과 기록이 남아있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자"로 적용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일제의 국권침탈 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계에서도 이론이 분분하다. 그러나 동학농민군이 일본제국주의의 침탈에 맞서 최초의 전면적인 항일투쟁을 전개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적 인적 자산이 의병전쟁과 독립전쟁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순국한 농민군들을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는 것이 무리는 아니라고 판단한다. 최소한 선언적이고 상징적으로라도 이분들을 독립유공자 반열에 모시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다음으로 동학농민혁명정신의 현재적 구현을 강조하고 싶다. 코로나19 감염증 광풍으로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대응이 선진 각국의 주목과 찬사를 받고 있다. 개방적이고 동시에 효율적인 방역체계와 4·15총선 등에서 보여준 높은 시민의식 등은 우리가 오랜 기간에 걸쳐 단련해온 민주주의와 공동체정신의 정수를 보여주었다. 한마디로 시민이 자율성을 지닌 주체임을 다시 입증했다는 측면에서 동학농민군이 주창했던 반봉건은 이제 상당 수준 실현되었다 할만하다.

그러나 척왜양창의(斥外洋倡義)로 대변되는 반외세의 과제 해결은 아직도 가야할 길이 멀어 보인다. 명실상부한 독립은 대외적인 자주성이 담보되어야 가능하다. 한편에서는 민족분단을 극복하지 못한 현실을 탓하지만 지금의 국가적 위상과 국력만으로도 관철시킬 수 있는 사안들이 적지 않다. 미·중 간의 신냉전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런 객관적 정세가 오히려 국가의 자주성을 높일 호기로 다가올 수도 있을 것이다. 넓게는 동북아의 평화 구축에서부터 좁게는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에 이르기까지 자주독립국가로서 자존심을 지킬 때 한층 유리한 지형이 조성될 것이라 확신한다.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여전히 유효한 까닭도 여기에 있다.

마지막으로 학계에서 더 적극적으로 동학사상을 재해석하고 대중화에 힘썼으면 한다. 지난 날 우리 근대사상의 원류를 실학에서 찾고 북학사상-개화사상으로 맥을 이어갔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통설로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이러한 논리가 가지고 있는 커다란 맹점의 하나가 아래로부터의 변혁이라는 당대의 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동학의 개혁사상(開闢思想)은 반봉건적 민중의식의 총화라는 점에서 오히려 근대사상의 주류로 자리매김해야 마땅하다고 본다. 또 인내천(人乃天)이나 사인여천(事人如天)과 같은 개념은 '평등'의 원리를 처음으로 체계화 이론화하였다는 점에서 세계에 자랑해도 손색이 없을 우리 민족의 정신적 자산이 아닌가 한다. 3·1혁명의 성과라 할 민주공화주의의 수용, 자유 민주 평등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확립도 기실 서구제도의 이식만으로 해석해서는 아니 된다. 왜 민족이 수난 속에서 체득한 소중한 가치들에 대한 평가에 인색하기만 할까 안타까울 뿐이다. 공동체 평등 복지 등 동학농민혁명이 던진 선구적인 화두에 우리 모두 눈과 귀를 열고 답을 내놓아야 할 때가 아닌지 자문해 본다.

윤경로(尹慶老) | 경기도 양주출생으로 고려대학교 사학과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981년부터 2012년까지 한성대학교 인문대학 역사문화학부 교수로 재직하였다. 주요 경력으로는 한성대학교 총장(2005~2009), 3·1운동100주년기념사업회 기억기념분과 위원장(2018~2020)을 역임하였으며, 2003년부터 현재까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지난 5월 11일 오후 3시 전북 정읍 황토현전적(사적 제295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주최로 열렸다. '농두의 함성, 새 하늘을 열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기념식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위패를 모신 구민사(救民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근조 화환을 정부를 대표하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봉정(奉呈)하는 것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국무총리 영상메시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기념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사연 영상, 참여자 후손 편지 낭독, 기념공연 순으로 펼쳐졌다.

이날 행사에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을 비롯하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이형규 동학농민혁명재단 이사장,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당선인, 유진섭 정읍시장, 권익현 부안군수, 박인준 천도교중앙총부 총무원장, 동학농민혁명 전공 연구자, 전국 기념사업단체 대표자 등 120여 명이 참석하여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 근조 화환 | 대통령 문재인



▣ 헌화·분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 참배 | 우측부터 송하진(전라북도지사), 박양우(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인준(천도교중앙총부 총무원장), 이형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국민의례



□ 국민의례



□ 영상 메시지 | 국무총리 정세균



□ 기념사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 편지 낭독 | 참여자(최문겸)의 6대손 최수지



▣ 내빈



▣ 기념공연 | 새야 새야 파랑새야



▣ 기념공연 | 새야 새야 파랑새야

국무총리 영상 메시지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무총리 정세균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행사에 뜻을 모아주신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종로에서 열린 '전봉준 장군님 동상 제막 1주기 기념식'에서는 직접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코로나19로 인해 영상으로 인사드려서 매우 아쉽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던 민중들의 의로운 혁명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은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민주화의 역사와 궤를 같이해왔습니다. 1980년대 민주화 운동,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이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또한, '인내천(人乃天)', '사람이 곧 하늘'이고, 그래서 '타인의 생명을 하늘처럼 존중하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은 지금 코로나19 위기국면을 헤쳐 나가는 힘찬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여주고 계신 양보와 배려, 연대와 협력의 뿌리는 바로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입니다. 그 힘이 기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4월 29일에는 코로나19 국내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3천만 명이 투표한 총선을 치르고도 국내 확진자가 0명이라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솔선수범하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타인의 생명을 내 것처럼 존중하는 동학농민혁명의 소중한 결실입니다.

존경하는 동학농민혁명 유족회와 관계자 여러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준 동학농민혁명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유산입니다.

우리 모두는, 의(義)로서 민중을 구하고 나라를 반석 위에 두고자 하셨던, 자랑스러운 녹두 전봉준 장군의 후예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를 제대로 인식하고, 후세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힘쓰겠습니다. 내년 황토현 전적지에 기념공원이 완공되면, 중요한 역사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전국에 산재해 있는 유적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정비해가겠습니다.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우리의 합성이 하나로 모아지면, 새로운 하늘이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사연

세상의 변화를 꿈꾼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기봉진(1860.5.23.~1895.2.3)

활동지역 : 전라도 곡성



기경도 (기봉진 참여자 유족/증손자)

기경도 | 참여자(기봉진)의 증손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로 활동하신 증조부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동학을 가르치셨고 밀고로 체포된 후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가르치시며 포교활동을 하시다 2차 봉기 때 군사로 참여하시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포교활동을 이어가던 중 결국은 붙잡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유족들의 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지난날의 설움을 모두 보상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유족들이 모두 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김선호 (김상일 참여자 유족/고손자)

국가에서 기념해주는 중요한 날이 됐기 때문에

김선호 | 참여자(김상일)의 고손자

국권수호를 위한 반일 의병

김상일(1858. ~1917.8.6.)

활동지역 : 충청도 청주

고조부께서는 처마 밑에 큰 칼을 숨겨두시고 자신이 나서야 할 때 몸을 아끼지 않고 앞장섰다고 합니다. 국가에서 기념해주는 중요한 날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떳떳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유족으로 명예가 회복된 것 같아 기쁩니다. 동학농민혁명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만민 평등을 추구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시초입니다.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힘을 실어 주시고 앞으로도 유족들의 명예회복에도 힘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족 혁명에 앞장 선
무사(武士)

최문겸(1865. ~1896.4.9)
활동지역 : 전라도 태인



최강경 (최문겸 참여자 유족/고손자)

반란사건으로 왜곡되면서 참여 사실을 숨기며 살아온 유족들이 많습니다

▣ 최강경 | 참여자(최문겸)의 고손자

동학농민혁명 지도자로 불린 증조부께서는 수많은 제자들에게 동학을 가르치셨고 밀고로 체포된 후에도 뜻을 굽히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가르치시며 포교활동을 하시다 2차 봉기 때 군사로 참여하시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 포교활동을 이어가던 중 결국은 붙잡혀 돌아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유족들의 설움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해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다시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동학농민혁명을 인정해 주신 것만으로도 지난날의 설움을 모두 보상받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를 비롯한 유족들이 모두 한 마음일 거라 생각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 편지 낭독

존경하는 할아버지.

따사로운 봄볕에도 마음 한편이 시린 것은 할아버지를 향한 죄송스러움 때문일까요. 봄날이면 마냥 들떠 있는 제 또래들과 달리 당신은 불평등한 세상을 바꾸기 위해 싸우셨죠.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평등한 세상이 당신께서 감내하신 고통의 대가라는 것을 생각하니 숙연해집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던 올곧은 분이셨다고 들었습니다. 자신의 몸을 돌보기보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헌신적으로 싸우셨죠.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공주 우금치전투 이후 후퇴하다가 다시 태인에서 일본군과 관군을 상대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고 끝내 남원시 사매면으로 피신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밤낮으로 재기를 도모하던 중 끝내 일본군에게 체포되어 처형 당하셨다고요.

비록 제게는 너무도 먼 이야기지만 낡은 신분제를 걷어내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만민이 평등한 세상을 열고자 했고, 국권수호를 위해 일제의 침략에 목숨을 걸고 싸우셨던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16년 전, 할아버지의 묘(墓)를 이장하던 때가 떠오릅니다. 현조모께서는 나라에 소란을 일으킨 폭도(暴徒)로 여겨졌던 당신의 시신을 해도 뜨지 않은 어두운 새벽, 남몰래 물어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국회의 특별법 제정으로 동학농민혁명이 정명을 찾았던 해, 가족들은 정읍의 닥땀이 산에 모셔둔 당신을 정읍의 선산으로 이장하며 비로소 제대로 살피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눈시울을 붉히던 아버지의 모습을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고조할아버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족은 보다 평안히 살았을지 모른다는 원망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는 잠시나마 당신을 원망했던 자신을 탓하며 눈물로 용서를 빌었습니다.

존경하는 할아버지.

지금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잘 지켜보고 계시죠?

늦게나마 할아버지께서 참여하셨던 동학농민혁명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어 이렇게 할아버님의 역사적 위업을 기리고 계승하고 있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나보다 우리를 먼저 생각하면서 살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 최수지 | 참여자(최문겸)의 6대손

전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고(故) 이이화 이사장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민족사 정립과 우리 역사의 대중화에 헌신해온 역사학자 고(故) 이이화 선생이 지난 3월 18일 별세(향년 84세)하였다. 시민사회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울대학교 병원에 빈소를 마련한 후 방문객을 최소화하였다.

선생은 1970년대부터 민족문화추진회, 서울대 규장각,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대표 등으로 활동하면서 학술연구와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특히 선생은,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역사대중화를 선도하면서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민족내부의 극심한 좌우대립, 민족분단과 한국전쟁, 군사정권집권기 등을 거치면서 극심하게 왜곡되고 축소된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등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왜곡되면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후손임을 숨기면서 살아온 유족들을 찾아 1994년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창립의 산파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국내외에 흩어져있던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들을 한데 모아 『동학농민전쟁 사료총서』(전30권)을 간행함으로써 동학농민혁명 연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위와 같은 공적(功績)으로 선생에게 2020년 3월 20일 대한민국 국민훈장 무궁화장이 추서되어 정부를 대표하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빈소를 찾아 훈장 추서식을 거행하였다.

●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 국민훈장 무궁화장



□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식
정부를 대표하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훈장을 추서하였다.

● 주요 내빈 방명록

선생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거든요,
2020. 3. 19. 이숙연 님

이이화 선생님
영원의 휴식길
행복하시라
2020. 3. 20
이문성 박원순

바로 세운
우리 역사
국민이 함께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 양 우

2020. 04.

제13회 녹두대상 신순철 원광대 명예교수 선정



▣ 2019년 고창동학농민혁명 학술토론회 (좌, 두번째)



▣ 신순철 (원광대 명예교수)

지난 4월 21일 전북 고창군은 동학농민혁명 관련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녹두대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제13회 수상자로 신순철 원광대 사학과 명예교수·전 원광학원 이사장을 선정하였다. 수상자는 1988년 전북문화지널사에 ‘갑오농민전쟁 100주년을 준비하자’라는 칼럼을 게재한 후 1991년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 창립준비위원장을 시작으로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회(1992),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1993), 사무총장과 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면서 기념사업에 몸담아왔다. 이후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 후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 국무총리 산하 ‘동학농민혁명참여자명회복심위원회’ 민간위원 등으로 활동하였으며,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특수법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1~2기 이사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2008년 고창군에서 제정한 녹두대상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의미와 그 숭고한 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을 매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그동안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제1회),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제2회), (사)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제3회), 고(故) 이이화 역사학자(제4회), 조정달 일본치바대 교수(제5회), 전북일보 동학농민혁명 특별취재팀(제6회), 나카츠카 아키라 전 일본나라여대 교수(제7회), 이기화 전 고창문화원장(제8회), 신용하 전 서울대 교수(제9회), 이상식 전 전남대 인문대학장(제10회),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제11회), 진기홍 전 광주체신청장(제12회) 등이 수상하였다.

2020. 05.

제10회 동학농민혁명대상(大賞) 도올 김용옥 선생 선정·시상



▣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기념 특별강연 (정읍시 주최/2019.4.25.)

제10회 동학농민혁명대상(大賞)으로 도올 김용옥 선생이 선정되어 5월 9일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서 개최된 제53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에서 시상하였다. 도올 김용옥 선생은 고려대 철학과 부교수, 중앙대 석좌교수, 국립순천대 석좌교수, 원광대 석좌교수를 역임하였으며 동학농민혁명 100주년 기념 창무극 『천명』 대본을 집필하였으며, 동학사상을 주제로 꾸준히 대중적인 강연 등을 펼쳐 동학농민혁명 역사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동학농민혁명대상(大賞)은 정읍시에서 2011년부터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발전을 위해 학술·연구 및 문화사업 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을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그동안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제1회),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제2회), 고(故) 최현식 전 정읍문화원장(제3회), 고(故) 표영삼 전 천도교 상주선도사(제4회), 송기숙 전 전남대 교수(제5회), 채현국 학교법인 효암학원 이사장(제6회), 고(故) 이희우 전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과 문흥식 동학농민혁명유족회 부회장(제7회), 고(故) 최순식 전 김제문화원장과 갑오농민동학혁명유적보존회(제9회)이 각각 수상했다.

제13회 후광(김대중)학술상 고(故) 이이화 선생 선정·시상



▣ 제13회 후광학술상 시상식 (전남대 민주마루 앞 광장)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후광학술상 수상자로 역사학자 고(故) 이이화 선생이 선정되어 지난 6월 8일 전남대 교정 민주마루에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후광학술상선정위원회(위원장:정일준 고려대 교수)는 “평소 교육과 연구에 정진하면서 민주, 평화, 인권, 정의와 관련된 학술적 업적이 우수하고, 실천적 공로가 지대한 고(故) 이이화 선생을 제13대 후광학술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선정 배경을 밝혔다.

고(故) 이이화 선생은 1970년대부터 서울대 규장각,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등에서 학술연구 및 역사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매진해 왔다. 1986년 ‘역사문제연구소’를 설립하여 역사대중화를 선도하면서 일제강점기, 해방이후 민족 내부의 극심한 좌우대립, 민족분단과 한국전쟁, 군사정권집권기 등을 거치면서 극심하게 왜곡되고 축소되어온 동학농민혁명 역사바로세우기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2004년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제정, 2019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제정 등을 견인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정착을 위해 헌신한 고(故) 후광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7년 전남대학에서 제정하여 시상해온 후광학술상은 그동안 부르스 커밍스 시카고대 석좌교수(제1회), 고(故) 리영희 전 한양대 교수(제2회),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제3회), 와다 하루끼 일본도쿄대 명예교수(제4회), 강만길 고려대 명예교수(제5회), 서경식 일본 동경경제대 교수(제6회), 최정운 서울대 교수(제7회), 서중석 성균관대 명예교수(제8회), 조지 카치아피카스 미국 웨트워스대 교수(제9회), 정근식 서울대 교수(제10회), 미즈노 나오키 일본 교토대 명예교수(제11회), 송기숙 전남대 명예교수(제12회) 등이 수상하였다.

KBS 전주방송 특집 심층토론 “동학농민혁명, 세계사적 가치는?”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월 11일)을 맞아 지난 5월 6일 정읍 황토현 전적(사적 295호)에서 KBS 전주방송 특집 “동학농민혁명, 세계사적 가치는?”라는 주제로 심층토론이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준병(정읍·고창 국회의원 당선인), 이형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유진섭(정읍시장), 박맹수(원광대학교 총장)가 출연하여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 이후 추진해나가야 할 동학농민혁명의 세계화, 미래화, 전국화를 위한 과제 등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장옥삼의 증손자 장원명

Q 이번 호의 유족 인터뷰에는 참여자 장 옥자 삼자 (1851~1895)의 증손자 장원명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녹두꽃』독자를 위해 본인소개 부탁드립니다.

A 먼저 이렇게 전남 광주까지 찾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장 옥자 삼자의 증손자 장원명입니다. 호적상 이름은 장원명인데 일반적으로 장원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로 활동하고 있으며 동학농민혁명 광주지구 유족회장도 오랫동안 맡았습니다. 이 외에 광주향교 전교(2013~2014), 성균관 부관장(2019), 광주광역시 동구 학운동 자치위원장, 광주광역시 동구 협의회 회장을 맡아 활동하였습니다. 고향은 전남 함평군 신광면인데 광주에서 학업을 마친 후 계속 광주에서 미화사업을 37년간 했습니다.

Q 선생님, 1894년 동학농민혁명 반란사건으로 평가 절하되었던 동학농민혁명은 2004년 '동학농민혁명참여자등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이 제정되어 명예회복의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로부터 15년 후인 지난해에는 동학농민군이 전라감영군을 맞아 최초로 대승을 거둔 5월 11일이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정부 주최로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제125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개최되었고, 올해는 정읍 황토현전적지에서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으로서 감회는 어떠신지요?

A 오랫동안 동학농민혁명이 반란사건으로 내몰리면서 제대로 말도 못했는데 정부에서 국가기념일로 공식적으로 제정해주니 꼭 해야 할 일을 한 것 같고, 하여간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고맙고 기분이 좋습니다. 잘 알려진 것처럼 동학농민혁명은 국기를 파멸시키고 정권을 탈취하려고 일으킨 반란이 아니라 낡은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부패한 탐관오리를 몰아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이 설치한 집강소에서도 백성들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광주에서 5.18민주화운동도 보았지만 동학농민혁명이야말로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994년 이후 동학농민혁명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는 데 힘을 보태기 위해 국회의원들한테 청원도 많이 했었는데 잘 되지 않았습니다. 기념일 제정을 위해 애써주신 문체부와 기념재단에게 유족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반란의 멍에를 벗고 혁명으로 그 인식이 전환되는 획기적인 전기가 확립되어 참으로 기쁩니다.

Q 선생님께서는 언제 유족으로 등록이 되었는지요?

A 오래되어서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지만 2006년인가 장익수 당숙 어른(장옥삼의 손자)이 먼저 유족 등록하셨고, 저는 몇 년 있다가 등록했으니까 아마도 2008년도쯤일 것입니다. 등록할 때 호적상 이름(장원명)으로 등록하지 않고 자주 쓰는 이름(장원석)으로 등록했습니다.





□ 동학농민혁명 장경삼 옥삼 공삼 선생 공적비 (전남 함평군 신광면 계천리 사천마을 장산들 입구)

Q 선생님은 증조부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사실을 언제 처음 아셨나요? 그리고 어떤 경로로 통해 참여한 사실을 알게 되셨는지요?

A 할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께서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증조부님(장옥삼) 뿐 만 아니라 증조부님의 큰 형님(장경삼)과 동생(장공삼)도 함께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고 들었습니다.

Q 선생님의 집안에서 한 분도 아니고 삼 형제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셨군요. 어떻게 해서 삼 형제가 참여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동학농민혁명 당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더 상세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A 그러니까 증조부님 형제간 중에 첫째가 장 경자 삼자, 셋째가 저의 증조부님 장 옥자 삼자, 그리고 넷째 장 공자 삼자 이렇게 삼 형제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습니다. 1893년 증조부님께서 서울로 과거시험을 보러 가셨는데, 그 이듬해 동학농민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때 함평에 있는 증조모님(장옥삼의 처)의 조카가 이화진이라는 대접주였는데, 그 분이 증조부님과 형제분에게 동학농민혁명에 함께하자고 권유해서 함께 함평으로 가서 참여하게 됐다고 합니다. 증조부님과 형제들은 전남 함평 신광면 괴치마을 앞 삼정들이라는 곳에서 농민군에게 군사훈련을 시켰고 삼 형제가 함께 전남지역 함평 고막포 전투, 무안

전투, 영광 영산면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전남 영광 영산면 전투에서 증조부님의 형님(장경삼)이 부상(화상)을 입어 동생들의 도움으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결국 체포되어 1894년 12월 9일에 함평현아에서 처형되었습니다. 그 이후 증조부님(장옥삼)과 동생(장공삼)은 다시 전투에 참여했고 피신하던 중 관군에게 발각되어 이듬해 1895년 2월 17일에 처형되었습니다. 두 분이 한남한시에 돌아가신 거죠.

Q 증조부님께서 과거를 보러 다녔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집안이 좋았을 것이라고 짐작해보는데, 동학농민혁명 당시 증조부님의 나이나 집안의 형편 등에 대해 알고 계시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주시요.

A 동학농민혁명 당시 증조부님 나이는 44세였고 집안은 상당히 윤택했던 것 같습니다. 증조부님은 사재를 털어 동학농민군에게 군량미와 필요한 장비들을 제공하였고 증조부님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이후 관에서 증조부님의 집을 허물어서 나온 목재를 함평객사 짓는 데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또 증조부님은 재산이 어차피 다 몰수당할 걸 예상하고 피신을 하면서 집에 있는 돈을 밭에 뿌렸는데 마을 사람들이 와서 다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Q 1894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당시 신분제 중심의 봉건체제를 개혁하여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사는 세상을 추구한 의거였으며,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국권을 수호하고자 했던 반일의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농민혁명은 지난 한 세기 동안 반란사건으로 치부되어 그 후손들은 오히려 숨죽여 살아왔습니다. 선생님 집안은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후 몰락했는데, 후손들이 삶이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이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힘든 건 말할 수 없었지요. 함평에서는 꽤나 윤택한 집안이었는데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다 몰수당했습니다. 생각해보니 할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게 생각나는데, 난리가 난 이후 이도재 전라도 관찰사가 새로 부임했는데 이분이 종중조부님(장경삼)의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몰수당한 논밭 등 재산을 돌려줬다고 해요. 종중조부님의 둘째 아들이 집문서, 땅문서를 돌려받아서 집으로 가는 길에 아전들을 만났는데, 아전들이 “장가 놈들이 다시 일어나면 우리는 다 죽는다.”고 해서 문서도 다 빼앗고 둘째 아들까지 죽였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산도 아무것도 남지 않고 고생을 많이 했죠. 집안 어른신들이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한 후 재산을 몰수당한 것뿐만 아니라 온 집안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가 끝난 후 그러니까 해방 이후 다시 고향(함평군 신광면 계천리 사천마을)으로 들어왔지만 곧이어 6.25전쟁이 터져서 또다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허기사 어디 우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뿐이었겠습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사람이면 죄다 힘들고, 못 먹고 가난한 시절이었지요.

Q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증조부님과 형제분들께서 돌아가신 후 시신을 거두었는지요? 그분들은 지금 어디에 모셔져 있는지요?

A 다행히 삼 형제 모두 시신을 거둬서 각각 자손들이 모셨습니다. 증조부님(장옥삼)과 동생(장공삼) 두 분의 묘소는 전남 나주시 다시면에 있고, 증조부님의 큰형님(장경삼)은 전남 함평에 묘소가 있습니다.

Q 동학농민혁명에 참여하신 증조부께서 남긴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 등 전해져오는 것은 없는지요?

A 조부님이 남아있는 유물을 찾으려고 애쓰셨는데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급하게 피신하셔서 뭘 챙기고 그럴만한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점이 참 안타깝고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원명님과 부인

Q 바쁘신 가운데 긴 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으로 남기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제가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로 있으면서 행사나 모임이 있으면 가급적 참석하려고 하는데 이번 기념식에는 몸이 불편해서 함께하지 못해서 참 아쉬웠습니다. 작년에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제정된 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기념식이 개최됐고 올해는 정읍 황토현 전적지 구민사(사적 제295호)에서 치러졌는데, 구민사에 저희 집안 삼형제 어른신들(장경삼, 장옥삼, 장공삼) 위패가 다 모셔져 있습니다. 증조부님(장옥삼) 위패를 먼저 모셨고 그 다음 종중부님들(형 장경삼, 동생 장공삼)을 모셨죠. 선조들의 위패가 모셔진 곳에서 기념식이 개최되는 것을 보니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후손으로서 뿌듯했습니다. 갑오선열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이 계승·발전될 수 있도록 힘닿는 데까지 돕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학농민혁명 유족회

충청도 북부의 동학농민군 지도자, 성두한



신영우
충북대 명예교수

드러나지 않았던 인물, 성두한

충청도 청풍의 대접주 성두한은 동학농민혁명 연구에서 감춰진 인물이었다. 그의 내력과 활동상을 전해주는 이야기가 찾기 어려웠다. 성두한이 갑오년에 활동한 지역은 청풍으로 나오지만 충주와 제천이 기록되기도 한다. 이름도 성두한(成斗漢)과 성두환(成斗煥)으로 둘이 나와 혼동하게 만든다.

성두한의 활동 무대였던 충주 제천 단양 청풍 4개 군현은 동학 세력이 강력한 권역이었다. 제2세 교주 최시형이 강원도 은거지에서 충청도와 경상도로 조직을 확대해간 지역이라 오래된 동학도가 곳곳에 있었다. 이들이 갑오년에 무장활동을 펴면서 청풍에는 동학농민군의 거점이 만들어졌고, 그 중심인물이 성두환이었다.

성두한은 갑오년 11월에 낸 포고문에서 호서창의대장 성(成)이라고 자신을 밝혔다. “이번 동도(東道)의 창의를 천도를 봉행하여 나라를 돕고 백성을 편안히 하려는 것이다. 왜적이 창궐하며 국가가 조석으로 위태하고 생명이 도탄에 들게 되었으니 말과 생각이 이에 미치매 통곡조차 할 수 없도다. 슬프다. 저 화친을 여는 적신(賊臣)과 서로 어지럽히는 유도(儒徒)가 외적과 결탁하여 군부를 위태롭고 욱되게 하며 도인을 죽이니 남쪽의 예천과 동쪽의 강릉이 중심이 된지라. 이제 죄를 묻기 위하여 의로운 깃발을 드노라.”

이 포고문은 창 의 목적이 보국안민과 반일의병이라고 밝히면서 예천과 강릉의 민보군이 외적과 결탁하여 동학농민군을 해치니 그 죄를 묻기 위해 깃발을 들었다고 했다. 경상도 접경지역과 강원도 일대까지 넓은 영역에서 활동하던 충청도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성두환이 유일했다.

전국에 걸친 전개과정의 파악은 물론 예천지역 사례연구를 했던 필자에게 창의대장 성(成)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했다.

신영우 | 동학농민혁명 연구자로 '갑오농민전쟁100주년추진위원회'(1989), 동학농민혁명백주년기념사업단체협의회, (재)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문체부 특수법인), 전봉준장군동상건립위원회 등에서 기념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리하여 1990년도 초부터 월악산 일대에서 성두환을 수소문하며 다녔다. 4군을 끼고 있는 월악산의 골짜기는 깊었고, 남한강 지류를 따라 형성된 경작지에는 마을이 곳곳에 퍼져 있었다. 하지만 그 후손이나 방손을 아는 사람을 찾아내지 못했다. 현지조사는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갑오년 기록에 나타난 성두한 위상

충청도 북동부에서 성두환의 위상은 대단했다. 갑오년 정월에 청풍의 동학을 대표하는 인물로 손병희 손천민 박인호 차기석 손화중 김개남과 함께 처음 성두환의 이름이 권병덕의 『갑오동학란』에 나온다. 처음부터 갑오년 동학에서 거두의 위상을 갖고 있었다.

성두환은 동학교단의 기포령 이전부터 봉기를 준비했다. 일본군 혼성제9여단 병력이 경북궁을 기습 점령한 6월 21일(음력)에서 한 달이 지나지 않은 7월 중순 청풍 읍내 인근의 성내리에 보루를 쌓고 천여 명을 집결시켰다. 본격적으로 무장활동에 들어간 것이다.

동학 조직이 의병을 자처하는 상황은 예천과 강릉 그리고 보은에서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양반 유생이 속수무책이었던 때 경상도 북동부와 강원도 중부 일대, 그리고 충청도 동남부에서 동학도들이 나라의 위기에 대응했던 방식이었다.

성두환은 예천의 동학농민군이 8월 말 읍내 민보군과 공방전을 벌였을 때도 관여했다. “관동대접과 상북·용궁·충경·예천·안동·풍기·영천·상주·함창·문경·단양·청풍 등 13명의 접주가 회합할 때 참여한 것이다.”

9월 동학교단이 기포령을 내리자 성두환은 청풍 원서면의 서창을 집결지로 정했다. 월악산과 소백산 주위 4개 군현에서 모인 서창집결군을 이끌었던 두령이 성두환이었다. 이때 충북 집결지는 충주 황산과 청주의 세교·송산, 그리고 진천 구만리 장터와 보은 장내리 등지였다.

충주 서창 집결지가 가장 위태로웠다. 충주 가흥과 연풍 안보의 일본군 병참부와 전신소에 배치된 수비병 때문이었다. 히로시마에서 출발한 일본군 제5사단 주력 부대가 부산과 서울을 잇는 병참망을 통해 북상하고 있었다. 충주 일대의 동학농민군 지도자는 일본군이 지방관에게 강요한 군수물자 수송을 맡는 인부를 모집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

성두환의 활약상은 현지 기록인 『갑오일기』와 도순무영의 『갑오군정실기』가 발굴되면서 일부나마 알려지게 되었다. 그의 활동은 주민들의 지지 위에서 가능하였다. 한 청풍 선비는 “일개의 우매한 백성이었는데도 백성들이 모두 그를 존경”했다고 하였다.

일본으로서는 성두환이 큰 두통거리였다. 청국과 국가의 운명을 건 전쟁을 벌이던 일본군의 전신망과 병참망을 위협한 동학농민군 지도자였기 때문이었다. 그렇지만 가흥과 안보병참부에 배치된 적은 수비병으로는 어쩔 수 없었다.



『갑오군정실기』

일본군 보급망을 단절시킨 안보병참부 화공

일본은 조선정부의 허락도 받지 않고 6월부터 부산과 서울 간 전신선을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설치된 병참부는 21개나 되었고, 이것이 충청도와 경상도 동학농민군의 1차 공격 목표가 되었다. 기포령 직후 경상도 선산과 상주의 동학농민군이 읍성을 점거하고 해평과 낙동병참부를 노렸으나 일본군의 반격을 받아 패산하고 말았다.

성두한은 9월 27일 새벽 안보병참부를 기습하였다. 안보는 수안보에서 작은 고개 너머 나오는 작은 분지였다. 그믐 직전 2천여 동학농민군이 접근하여 사방에서 화공을 가하였다. 결국 38명의 수비병은 우세한 무기를 활용하지 못했고, 병참부 건물과 전신소가 모두 불타버렸다. 이 사태는 청일전쟁 동안 일본군이 후방에서 전신망이 공격받은 유일한 사건이었다. 당장 히로시마대본영과 청국 전투 현장의 일본군 제1군사령부 간 통신이 끊어졌다. 모든 전투를 대본영의 육군참모본부와 해군군령부가 지휘하던 근대식 전쟁에 지장이 초래되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제1군사령관은 즉각 해결하도록 엄명하였고, 전쟁기획자인 가와카미 소로쿠 참모차장은 대대병력을 증파하면서 동학농민군 초멸령을 내렸다.

성두한은 서창을 기습해온 일본군을 피해 단양을 거쳐 제천을 지나 강원도로 활동지역을 옮겼다. 후비보병 제19대대 동로군이 그 뒤를 추적했으나 오래도록 종적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러나 전국에 걸쳐 동학농민군의 활동이 종식되던 을미년 2월 마침내 사로 잡혀서 서울 감옥소에 갇혀 재판을 받았다.

판결 선고서는 “충청도 4개 산군(山郡)의 지방에서 무리를 모아 관고의 군물을 약탈하고 민간의 돈과 곡식을 빼앗았으며 관정이나 마을에서 소요”를 일으킨 것이 성두한의 죄라고 했다. 안보병참부 화공으로 일본군이 집요하게 추적했던 사실은 갑오개혁 정부의 판결문에 기재되지 않았다.

이이화 선생과 찾아간 성두한의 청풍 근거지

2019년 9월 9일 성두한의 자취를 찾아 이이화 선생과 청풍을 갔다. 이 길이 함께 가는 마지막 답사가 되었다. 이이화 선생은 전봉준동상건립위원장으로 2018년 3월 동상을 세운 다음에 3책으로 펴내는 ‘동학농민혁명사’를 매듭짓기 위해 청풍을 찾은 것이다. 전국의 동학 유적지를 다녔지만 성두한 연고지는 처음일 수밖에 없었다.

지금 청풍 읍내는 충주호에 잠겨있다. 넓은 호수를 바라보고, 성내리로 들어갔다. 지붕만 함석이나 슬라브로 달라졌을 뿐 산골 마을은 초가집 늘어진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흙담에 기대서 쌓아놓은 장작이 가득하다. 이이화 선생은 이집 저집 나무문짝을 기웃거렸다.

다음엔 성두한의 사촌 성운환의 거점인 학현 마을로 갔다. 제천 민보군의 보고가 상세하다. “이곳은 청풍에서 가장 험한 곳으로, 네 개의 산이 벽처럼 서 있어서 겨우 한 길로만 통합니다. 밤에 출발한 두 부대가 산 뒤의 석벽을 따라가다 동네 어귀에 들어왔으나 아무도 없었습니다. 20여 리를 더 가니 인가가 40여 호 있고, 순찰하며 지키는 자가 수십 명이었습니다.” 전 이장을 만나 동네 이야기를 들었으나 갑오년 일은 나오지 않았다.

성두한이 살던 적곡리는 월악산으로 더 내려가 위치한 마을로 지금은 제천 수산리에 속해 있다. 마을회관 옆에선 검붉은 수수열매가 탐스럽게 익어가고 있었다. “얼마 만에 보는 수수밭인가!” 갑오년 함성은 종로 네거리 전봉준 장군의 동상 좌대에 한 구절로 남았다.

“동학농민군의 함성은 1894년 이 강산을 뒤덮었다. 녹두장군 전봉준이 지휘한 동학농민군은 부패한 벼슬아치를 몰아내고 폐정을 바로잡기 위해 봉기하였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전봉준은) 권설재판소에서 사형 판결을 내린 다음날인 1895년 4월 24일 새벽 2시에 손화중 김덕명 최경선 성두한 등 동지들과 함께 교수형을 받았다.” 성두한이란 이름이 검은 돌에 새긴 이 설 명문에 들어가 있다.



▣ 충북 제천시 청풍면 학현마을 전 이장과 이이화 선생



▣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적곡리를 찾은 이이화 선생과 필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전시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어린이 전시실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동학농민혁명 애국애족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 전시실은 어린이들이 동학농민혁명 전개 과정과 역사적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체험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동학농민혁명 이해를 바탕으로 동학농민군 되어보기, 팝업북 만들기, 도전 골든벨, 입체퍼즐 만들기, 보드게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 어린이 전시실 내부



▣ 어린이 전시실 내부



▣ 녹두학당



▣ 청소년 교육·체험 활동 (※코로나 상황으로 2019년 사진 활용)



▣ 어린이 교육·체험 활동 (※코로나 상황으로 2019년 사진 활용)



▣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교육용 교구재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어린이 전시실을 다녀와서

“나라와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겠습니다.”



정석준 (전주 온빛초 6학년)

저는 어렸을 때 전주국립박물관 근처에 살았기 때문에 박물관에 자주 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자연스럽게 역사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방학이 되면 전국에 있는 박물관을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동학농민혁명에 대해서는 학교 수업시간에 우리 고장의 위인에 관련된 독후감을 쓰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녹두장군 전봉준'이라는 위인전을 읽고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학농민혁명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시 중에 어린이 전시실을 재미있게 보았는데요. 어린이 전시실은 동학농민혁명의 배경과 전개과정을 그림으로 쉽게 풀어 놓아서 동학농민혁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또 동학농민혁명 당시 농민군과 일본군이 사용했던 총(모조품)을 만져 보고 쏘보는 포즈도 취하면서 마치 동학농민군이 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시관을 둘러보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외세의 침략에도 끄떡없는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제53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



기념식



제10회 동학농민혁명대상 시상식 수상자 도올 김용옥 선생



묵념



내빈

지난 5월 9일 정읍 황토현전적지 일원에서 정읍시와 (사)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이사장 김영진) 주최·주관으로 제53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기념제가 열렸다. 정읍시 고부면 신중리 주산마을 '무명동학농민혁명위령탑'에서 올린 위령제를 시작으로 황토현전적지 제세문 앞 광장에 설치된 특설무대에서 기념식을 개최하고, 구민사에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추모제례가 엄숙하게 거행되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제10회 동학농민혁명대상(大賞) 수상자 도올 김용옥 선생과 제2회 UCC공모 대상수상작의 작가 배유미 씨에 대한 시상이 있었다. 매년 대규모로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하던 기념제는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치러졌는데, 이날 행사에는 유진섭(정읍시장), 김영진(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이사장), 윤준병(국회의원 당선인), 이형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최낙삼(정읍시의회 의장), 수상자 도올 김용옥 선생을 비롯하여 관련 단체 관계자 및 일반시민이 참석하여 갑오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렸다.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 행사



지난 5월 10일 남원 교룡산 동학공원에서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5.11)과 남원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 기념일(5.22)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렸다. 남원기념사업회(대표:안경엽) 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는 청수봉전, 묵념, 무장포고문 낭독, 기념사 및 축사, 용담검무 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정린·강용구 전북도의회 의원, 김주완 남원문화원장, 손종열·양해석·이미선·한명숙 남원시의회 의원을 비롯하여 일반 시민이 참여하였다.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 1주년 기념식



지난 5월 11일 청주시 석교동 청남교 옆 소공원(장승공원)에서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대표:김양식)주최로 제126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일 제정 1주년 기념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는 2007년도에 설립된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창립선언문 낭독과 '새아새야 파랑새야' 노래 합창 등이 있었다. 충북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김양식 대표는 "동학농민혁명은 전통사회에서 근대사회로 전환되는 중요한 시점이며 사람이 하늘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죽음과 맞바꾼 날"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가 진행된 장소는 동학농민혁명 당시 청주성 전투가 있었던 곳으로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제126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



지난 5월 27일 장성 황룡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공원에서 제126주년 장성황룡 동학농민혁명 승전기념식이 개최되었다. 장성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조복래)와 광주·전남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대표:이상식)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는 식전공연, 개회선언, 국민의례, 경과보고, 폐정개혁·12개조 낭독, 기념사, 축사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이개호(국회의원), 유두석(장성군수), 차상현(장성군의회의장), 이형규(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최효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을 비롯하여 참여자 유족 및 지역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하였다.

2020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



▣ 축사 영상 | 정세균 국무총리



▣ 축사 영상 |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 내빈



▣ 축사 | 이형규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이사장



▣ 헌화·분향



▣ 녹두관 가는 길

지난 5월 31일(동학농민군 전주성 점령일)에서 6월 11일(전주 화약일)까지 기간에 2020년 동학농민혁명 기념주간 행사가 전주동학농민혁명 녹두관, 전주한옥마을, 전주유적지 등에서 다채롭게 개최됐다.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이사장:이종민)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그 첫 번째로 '꺼지는 않은 불꽃'이라는 주제 아래 5월 31일 <1부>동학농민군 전주입성 126주년 기념식, <2부> 동학농민군 안장 1주기 추모행사, <3부> 동학농민혁명 지도자 안장 1주기 추모공연 순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추모공연에서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발전과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에 공헌한 고(故) 이이화 선생의 영상과 추모시 낭송이 있었다. 이 밖에도 동학농민혁명 전주지역 유적지 탐방, 동학농민혁명 126주년 기념 전시회 및 시민체험전 등이 기념주간 동안 펼쳐졌다.

2020 산청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지난 6월 10일 경상남도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 동학농민혁명기념비 앞에서 2020 동학농민혁명군 승전기념식이 열렸다. 경남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회장:김희수)에서 주최하고 산청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회장:하재호) 주관한 이날 행사는 국민의례 및 천도교의례, 동학농민혁명 폐정개혁 12개조 낭독, 기념사 및 축사, 동학행진곡 합창, 심고, 식후 문화행사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송범두(천도교 교령), 진동기(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사무총장), 성연석(경상남도의회 의원), 조균환·심재화(산청군의회 의원), 산청군 관계자 및 기념사업 단체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념식이 열린 산청군 시천면 내대리는 갑오년 동학농민혁명 당시 경남지역 최초로 동학교단의 백낙도 대접 주 중심으로 봉기에 나선 역사적인 장소이다.

언론에 비친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월일	언론사명	기사 제목
3월 2일	뉴스메이커	정읍시, "동학농민혁명 정신 UCC에 담는다"
3월 18일	네이버뉴스	역사학자 이이화 '국민훈장 무궁화장' 추서
4월 14일	중부매일	공주시, 동학농민혁명 '우금티전적' 정비
4월 16일	중도일보	동학농민혁명 '우금티전적' 120억 들여 정비
4월 23일	경향신문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126년만에 고교 교과서에 수록
4월 27일	서울경제	고창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 속도 붙는다
4월 28일	새전북신문	동학농민혁명 선양을 위한 국가기념공원 조성사업 착공
4월 28일	경향신문	전국 최대 동학농민혁명기념관 전북 정읍 황토현서 착공
4월 29일	중도일보	고창군 무장기포 수록 한국사교과서 봉정식
5월 6일	중부매일	공주시, 제2회 동학농민혁명 기념식 개최
5월 6일	중도일보	정읍시 제2회 동학농민혁명 UCC 공모전 수상작 선정
5월 6일	전민일보	제53회 황토현동학농민혁명 기념제 9일 개최
5월 6일	연합뉴스	신순철 전 원광학원 이사장, 제13회 녹두 대상 수상
5월 6일	NEWS1	제10회 동학농민혁명대상 도올 김용옥 선생 선정
5월 11일	새전북신문	오늘 황토현에 동학농민혁명 함성
5월 11일	KBS 전주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식 '녹두의 함성, 새 하늘을 열다'
5월 11일	YTN	동학농민혁명 국가 기념식...정읍 황토현서 열려
5월 12일	노컷뉴스	동학농민혁명 송고한 정신 기리다
5월 12일	충청투데이	예산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에 세워진 송고한 정신
5월 21일	한국농정	국가기념일 1년 ... '동학농민혁명 재평가' 못 박아
5월 21일	새전북신문	'전봉준을 사형에 처함..' 동학농민군 판결기록 복원
5월 21일	연합뉴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민간소장 유물·자료 구매합니다"
5월 28일	NEWS1	제2의 동학농민혁명-정읍시 '기해농민봉기' 조형물 제막식
5월 29일	머니투데이	나주시, 나주동학농민혁명 재조명 포럼 개최
6월 1일	연합뉴스	전주시, 녹두관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유골 안장 1주기 추모식
6월 1일	뉴스메이커	동학농민혁명 정신, 꺼지지 않는 불꽃으로!
6월 8일	베리타스알파	전남대, 후광학술상 제13대 수상자에 민중사학자 고(故) 이이화 선생 선정
6월 13일	뉴스메이커	진안군,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 세미나

교육·체험 프로그램

구분	프로그램명 및 활동내용		운영일정	장소	참여대상/인원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	어린이	관내 어린이 프로그램 '우리는 하늘이다'	어린이전시실 관람, 농민군 되어보기, 팝업북 만들기	6 ~ 12월 (수·목·금) 60분 소요	어린이 전시실, 녹두학당	미취학 아동 ~초등 2학년 / 30명 내외(단체)
	청소년	관내 청소년 프로그램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다'	동학농민혁명 이해, 팝업북 만들기, 도전 골든벨	6 ~ 12월 (수·목·금) 이론 40분 / 체험 80분	교육관, 전시관	초등 3학년 ~중고등학생 / 30명 내외(단체)
		관외 청소년 프로그램 '사람답게 사는 세상'	동학농민혁명 이해, 입체퍼즐 만들기, 동학보드게임	6 ~ 12월 (월·화) 이론 40분 / 체험 80분	전국 초등학교 방문 운영	초등학생 전 학년 / 30명 내외
교원직무 연수	'동학농민혁명 바로보기' (전문 강사의 강연 및 유적지 답사)		하반기 / 1박 2일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국 초중등 교원 / 40명 내외	
생생 문화재	1박 2일 답사 '녹두장군과 함께하는 1박 2일'		10 ~ 11월 (4회)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일반인(성인 가족) / 38명 내외	
	다문화 가정 프로그램 '파랑새를 찾아서'		9 ~ 10월 (5회)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국 다문화 가정 및 어린이 / 38명 내외	
	1일 체험 프로그램 '황토현에서의 하루'		9월 ~ 10월 (4회)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국 중고등학생 / 38명 내외	
	자유학기제 연계 프로그램 '꿈을 품은 박물관'		7월 ~ 11월 (4회)	기념관, 전북 내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전국 중학생 / 38명 내외	

※ 교육·체험 프로그램 신청방법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www.1894.or.kr) 접속 → '교육체험이동' → 신청하기 → 담당자와 일정 확인
 전화 문의 : 063-536-1894 (기념관) 대표 이메일 : 1894@1894.or.kr
 자세한 일정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기념관 전시해설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는 관람객의 전시 이해를 돕기 위해 전시해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 : 홈페이지 (www.1894.or.kr) →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이동 → 예약 또는 전화문의 063-536-1894

동학농민혁명 관련 유물(자료) 기증·기탁 안내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 및 단체가 소장하고 있는 유물(자료)을 대상으로 기증·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기증·기탁 해주신 소중한 유물(자료)은 이후 동학농민혁명 학술연구·전시 등에 활용할 뿐만 아니라 항구적으로 보존·관리하고자 합니다. 관련 유물(자료)을 소장하고 계신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 기증·기탁 유물

- 동학농민혁명 관련 고문서, 고서적, 사진(무기·농경 등)
-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유족이 소장하고 있는 유물, 서신 및 자료 등
- 기타 기념재단에서 연구·전시·보존할 가치가 있는 유물 및 자료

● 참가 자격 : 개인, 기관, 단체 등

● 수집 방법 : 대상 유물 확인 후 유물(자료) 수령

- 기증 : 유물 및 유물의 소유권을 기념재단에 기부
 - 기탁 : 유물만 기념재단에 일정기간 위탁(유물 소유권은 소장자에게 있음)
- ※ 기증 및 기탁은 조건 없는 무상 기증(기탁)임

● 기증·기탁 유물 처리 및 활용

- 수장고 보관 등 항구적이고 체계적인 보존·관리
- 동학농민혁명의 학술연구·전시·교육 자료로 활용
- 기념재단 소장품 등록 및 필요 시 특별 전시(기증·기탁자 명 표기)
- 중요 자료의 문화재 지정 추진

● 기증자(기탁자) 예우

- 기증·기탁증서 및 감사장(패) 수여(필요시 기증식 거행)
- 기념재단 중요행사 시 초청
- 간행 학술도서 및 학술지·도록·소식지 등 발송

● 기증·기탁 방법

- 접수기간 : 연 중
 - 접수방법 : 접수처 문의
 - 접수처 :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구조사부
- 주 소 : 전북 정읍시 덕천면 동학로 742(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연락처 : 063-538-2897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전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기곤 이사장 별세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과 그 후손들의 명예회복사업에 기여한 전 (사)동학농민혁명 유족회 고 이기곤(1936~2020) 이사장이 지난 3월 31일 별세(향년 83)하였다. 전남 능주·화순·나주·광주 등지에서 활동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이병환 님의 손자인 이기곤 이사장은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사무총장, 회장을 비롯하여 2017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법인 인가를 받은 (사)동학농민혁명유족회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또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제 2기, 제3기 이사를 역임하면서 '동학농민혁명기념공원추진위원회', '동학농민혁명기념일제정추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김대중총재 비서실장, 민주평통정책심의 상임위원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 발전에 기여하였다.



□ 빈소 (2020. 3)



□ 축사 / 제123주년 무장기포기념제 (2017. 4. 고창군 무장객사)



□ 축사 / 제123주년 장성 황룡 승전 기념행사 (2017. 5)